

삼성엔지니어링(주) 환경기술이전설명회 개최

삼성엔지니어링(주)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이전 설명회를 한국기술거래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3일에 한국 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이전 지원제도 및 기술이전절차와 고정미생물 담체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기술(SM 기술), 질소·인 제거용 Step Feed 하수처리기술(PADDO 기술), 오염 토양 복원기술, 폐수처리용 미생물 처리제(GENEKO), 골판지 공정수 재이용 기술(SCORES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고 기술이전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환경기술 작년도 4천여억원 수출·수주

오폐수 처리업체인 ㈜하나를 비롯한 국내 환경관련 업체들이 작년 한해동안 4천79억원의 환경기술을 수출하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환경산업이 부가가치가 큰 황금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환경관련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89개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지 27개국을 상대로 4천79억원의 수출 또는 수주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는 2천38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작년 3월 중국 허베이(河北)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으로부터 총 2천111억원에 달하는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의 상수,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93억원에 달하는 전기집진기를 일관수주(Turn-Key)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분야별 수주. 수출실적은 • 환경설비 3천530억원(86%) • 환경기자재 443억원(11%) • 환경상품 106억원(3%)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매체별로는 수질이 2천495억원(61%), 대기가 1천433억원(36%)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지역별로는 중국이 2천549억원, 동남아시아가 145억원 등이었다.

가축분뇨 악취 제거 에코바이오 발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가축분뇨의 악취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 “에코바이오(Ecobio)”가 지난 3월 4일부터 본격 시판되었다.

에코바이오는 국내 토착 미생물 가운데 악취 분해 효과가 큰 25종을 선발, 안정화된 분말에 섞어 가축에 먹이도록 만들어졌다.

에코바이오를 돼지에 먹인 결과 일반 돼지보다 암모니아의 경우 24.4%가, 자극성 냄새가 심한 초산(醋酸)은 18.3%가 각각 감소한 분뇨를 배설했다.

특히 에코바이오는 가축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해 돼지 사료에 에코바이오 0.3%를 첨가한 결과 일반 돼지보다 체중이 14.1% 늘어났다고 축산기술연구소는 밝혔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에코바이오 제조기술을 특허 출원한 뒤 3년동안 ㈜우진에 4천40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기술을 이전했으며 이날 ㈜우진은 에코바이오를 본격적으로 시판했다.

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 김태일 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에코바이오는 외국산과 달리 국내 토종 미생물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비전21,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환경비전21의 BCS 공법이 “바이오세라믹 담체를 적용한 연속회분식 반응조/바이오세라믹”이라는 제품명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월 12일 공시했다.

BCS공법은 개발·생산하여 농도도 축산폐수·분뇨 및 저농도 오·하수 처리장에 적용되어 우수한 처리효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정부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KT, NT, EM, IT, GR, GQ,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됐다.

광촉매 산업 뜬다

광촉매가 친환경소재로 건축재 벽지 블라인드등 환경관련 산업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광촉매란 빛을 쬐이면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반응을 일으켜 공기나물에 포함된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제거하는 신소재. 오염된 실내외공기정화 항균 냄새제거 오염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99년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광촉매개발에 성공한 솔라텍(대표 윤성수, www.solartech.com)은 광촉매를 내부벽면 코팅제로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솔라크린’이라는 광촉매 코팅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30여 개의 지사를 확보했다. 솔라텍은 가맹점에 자체환경연구소에서 제조한 코팅액과 시공설비와 시공기술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쇼핑몰 극장 등 공공시설의 내부벽면코팅제로 이용됐고 최근에는 병원 학원 아파트 등에서도 찾고 있다는 것이 솔라텍의 설명이다.

권영진 솔라텍 마케팅부장은 “광촉매산업이 99년에 미국에서 ‘21세기유망산업’으로 선정됐고 2001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10대 유망산업이 됐다”며 앞으로 하나의 화학소재 산업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각종 생활소품에 광촉매를 응용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들도 눈에 띈다.

산소블라인드(www.sansoblind.co.kr 대표 김기만)는 공기정화기능 항균기능을 가진 ‘광촉매 블라인드’를 출시했다.

기존 블라인드가 단순히 햇빛을 차단하는 실내 인테리어용이었다면 이 제품은 블라인드 표면에 광촉매 물질을 코팅해 실내공기정화 환경호르몬제거 유기물세균분해 악취제거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환경제품이다.

최재호 산소블라인드 부장은 “건축설계에 있어 창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제품에 대한 문의전화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발안 지방산업단지에서 들어서는 폐수중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된다.

SK케미칼, 환경 관련업 진출 계획

SK케미칼은 환경측정 대행업 및 환경 관리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사업목적은 바꾼 이유는 신규 사업의 진출로 매출 및 수익증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라이거시스템즈, 환경관리공단프로젝트 수주

웹 기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라이거시스템즈(대표 황시영)는 환경관리공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지난 2월 20일 밝혔다.

라이거시스템즈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국가환경기술통보시스템(www.konetec.or.kr)의 국·영문 DB 구축, 홈페이지 개선 및 향후 유료화에 대비한 정보서비스 인증시스템 개발, 보안시스템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DB자료를 구축하고, 정부의 환경기술정책 및 공단사업 홍보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영세 환경산업체의 기술 및 설비 홍보 등 영업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거시스템즈 신동의 상무이사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화를 확보함은 물론 섬유정보센터 구축 사업 등 유사한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이거시스템즈는 그 동안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관련 프로젝트, 산업자원부의 밀라노 프로젝트, 건설교통부 산하 도로공사 관련 프로젝트 등 공공 분야 SI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

4월
실무 교육

집진장치 운전 유지보수 및 SOx, NOx 제어 기술

문의 : 연합회 (02)-852-2291